

밀레코리아, 신제품 한국시장에 들어온다

2009.12. 30

독일가전 밀레가 내년 한국 시장에 드럼세탁기.의류건조기 등 신제품을 들여올 계획이다.

30일 밀레코리아에 따르면, 밀레코리아는 한국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진공청소기.전기 레인지 등 기존 품목 외에도 내구성 강한 친환경 신제품을 내년에 새로이 수입한다.

△액체세제 투입장치가 장착돼 환경오염을 30% 가량 줄인 `리퀴드워시 세탁기`
△히트펌프를 탑재해 기존 의류건조기 대비 40% 이상 전기료를 절약하는 의류건조기
△전자식 프로펌프(BLPM)를 장착해 수압을 조절하는 `살균세척 식기세척기` 등이다.

이밖에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저변을 늘릴 계획이다.

밀레코리아는 2005년 한국 법인 설립 당시 건설사 등에 공급하는 특판 비중이 약 70%일 정도로 B2B 사업 의존도가 높았으나, 이후 백화점.대리점 등 일반 소매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.

안규문 밀레코리아 대표는 "국산 브랜드의 가전 시장 점유율이 90% 이상인 한국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용하는 내구성 강한 고품질 제품과 2년 무상 AS(애프터서비스) 등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, 강력한 백화점 유통망을 활용한 결과"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

밀레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지만, 올해 작년 대비 12%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 내년에는 15%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

[황시영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